

광주시,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육성 본격 나선다

연구기획TF팀 구성...SKT·NHN·조선대·광주TP 등 참여 인공지능·3D 융합·IoT산업 등 특화된 광주형 전략 마련

광주시에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가상이 결합된 '초월(meta) 세계(verse)'를 의미하며, 5G와 가상기술(AR, VR)을 토대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상융합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획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기획 TF팀에는 ▲SKT

▲NHN ▲CJ올리브네트웍스 ▲버넥트 ▲유오케이 ▲조선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호남권 연구센터) ▲광주TP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대거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산업으로 메타버스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2.0 대표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에 대응해 가상

합 시대를 선도하고 인공지능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메타버스 산업 육성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전문가들은 현황과 향후 기술전망에 따른 육성방향, 민관 협업 방안 등 디지털 뉴딜 2.0과 연계한 광주시 메타버스 육성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 연구기획위원은 "광주시에 인공지능에 기반을 두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마트 사범도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재난, 교통관련 스마트시티 플랫폼 안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AI7간의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현황을 공유했다. 또 다른 위원은 "광주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사업아이템을 만들고 다

들어야 한다"며 "광주의 e-스포츠경기장, 인공지능센터, 문화컨텐츠 등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TF팀 회의를 정례화하고 내실 있는 연구기획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3D융합, IoT산업 등이 특화된 메타버스를 광주형 AI메타버스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온라인, 비대면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전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광주시에 인공지능산업은 물론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분야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9개시군·도의회 등 지방대학 위기 극복 나서

전남도와 9개 시군,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20개의 지역 대학들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에 공감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과제와 제도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26일 도청 왕인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지사, 장석용 전남도교육감, 유근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박성현 광주·전남지역대학교장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지방대학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상생협력체' 구성을 통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발굴 ▲지역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협력과제로 선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AI산업 육성 등 대선 공약 과제 발굴 공개 글로벌&아시아 센터 건립 방안도

광주시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대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과제(안)를 발굴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광주시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0대 대선 공약 시민 토론회를 열어 15개 공약과제, 70개 단위사업,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공약과제는 광주시에 광주전남연구원의 지난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광주시는 광주를 아시아 AI 중심도시로 조성하려고 관련 법률 제정, AI 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송철호(왼쪽에서 네번째) 울산시장이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양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울산, 지방의료원 설립 손 잡았다

예타면제 공동 대응 업무협약

'지방의료원' 소외지역인 광주시와 울산시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26일 오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공공보건 위기에서 지역 간 의료시설 불균형과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국민 위기를 증폭하고 있다는 뜻을 함께하고 지방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시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학계 등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방의료원 설

립 추진에 필요한 각계의 의견과 행·재정적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방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에 지방의료원 설립의 최대 난관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공동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 설립·운영 제도 발전을 위해 각 정당과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협력을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존 재해야 하는 사회 기반시설"이라며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앞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

문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만나 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와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광산구와 서구 경계에 있는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하고, 350병상 1500억원 규모의 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예타를 통과해야 하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울산시는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 제외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상대로 예타 제외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약신도시 활성화 TF' 구성 전남도, 살기좋은 도시 만든다

전남도는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약 신도시를 더 좋은 도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남약 신도시 활성화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남약 신도시 활성화 TF'는 남약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위해 전남도 관련 부서, 목표주와 무안군의 관계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앞으로 신도시 조기 활성화, 신도시와 주변 도시의 상생 동반발전, 문화관광도시 조성, 21세기 흐름에 맞춘 남약 도시계획 정비방안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복지연구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공백 장기화

3차 공모 끝에 내정된 광주 복지연구원장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성배 광주 복지연구원장 후보자는 이날 광주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최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잦은 전입 등 의혹이 불거져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광주시는 "공개모집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결정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책임지고 자진해서 사퇴했다"며 "원장 임용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기(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